

“전북 탄소산업 세계에 알렸다”

국제탄소페스티벌 성공적인 폐막 43개국 참가... 관람객 7000여명 기록

전세계의 복합소재 전문가, 기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2회 국제탄소페스티벌(ICF) JEC ASIA 2017'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 JEC 그룹 공동주최로 1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전세계 43개국 214개 기업이 전시회에 참여했다. 전시회와 컨퍼런스 등을 찾은 3일 동안의 관람객은 총 7000여명에 이르렀다. 지난해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

최대인 JEC ASIA 행사의 관람객수가 3000여명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단히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제12회 국제탄소페스티벌의 슬로건은 “한국 탄소산업의 시작은

전라북도, 전주에서”였다. 행사 슬로건에 걸맞게 전라북도와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컨퍼런스 및 전시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계인에게 전북 탄소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비전을 각인시키

고자 총력을 기울였다. 탄소소재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는 최신 탄소소재 기술동향을 발표하고 발전방안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 전북도 임노옥 탄소산업과장은 “전북 탄소산업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농업마이스터대 교육생 한자리 270여명 한마음대회서 단합 재배 우수 농산물 전시·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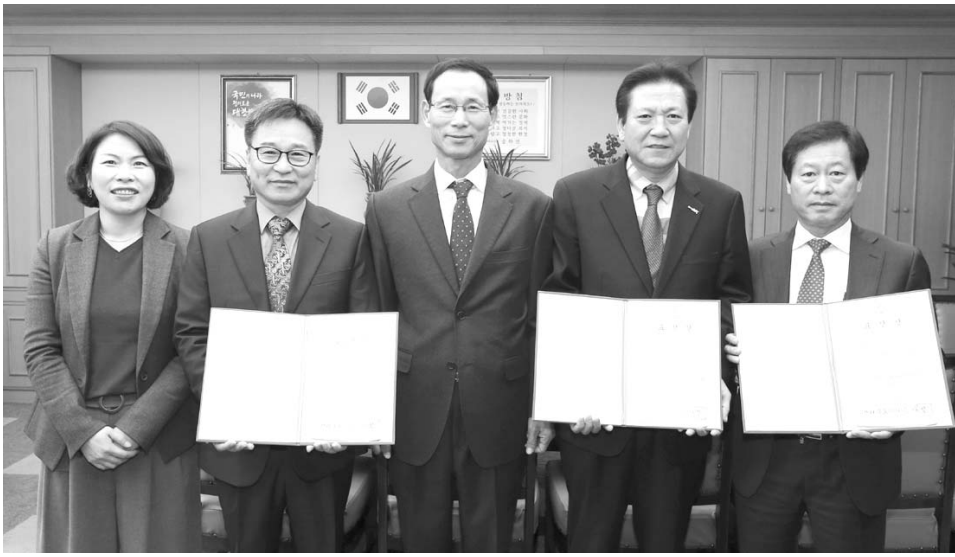
전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원장 박창근)은 품목별 핵심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이 참여하는 '2017년 전북 농업마이스터대학 한마음대회'를 7일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토마토, 오이, 딸기 등 14개 전공 교육생 27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단합과 품목별 기술교육 습득을 통해 농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주요 행사로는 전공별 단합과 협동심을 배양하기 위한 체육경기와 명랑운동회, 재학생이 재배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홍보하는 장도 마련됐다.

전북도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농업이 미래산업이라는 확고한 믿음 아래 삼각농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최신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배양하여 전북 농업의 발전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하는 2년제 장기교육과정으로 2009년 개교하여 현재까지 92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김진성 기자



일자리창출 우수 자치단체 시상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7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일자리가 최대 국정과제가 된 상황에서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시·군 일자리정책 평가에서 최우수에 원주군, 우수에 군산시, 장려에 순창군을 선정하고 각 시·군 부단체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일자리가 최대 국정과제가 된 상황에서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시·군 일자리정책 평가에서 최우수에 원주군, 우수에 군산시, 장려에 순창군을 선정하고 각 시·군 부단체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도, 성매매와의 전쟁 선포

예방·근절 도모 지역사회 협업체계 강화

전북도는 8일 도청에서 전북경찰청 및 시군 경찰서, 도 교육청, 시군 담당 및 담당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시설 등 등 관계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매매 예방·근절을 위한 2017년 성매매 관련기관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4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성매매 근절 간담회는 그동안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지역 현안과 구체적인 논의에 한계가 있어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자체 주

관으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조체계 및 청소년 성매매 유인방지 학교 앞 유해업소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송경숙 전북인권지원센터장은 성매매 피해여성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 성매매예방 통합교육과 캠페인 등 대중 인식전환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북경찰청 고문석

여성보호팀장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휴대폰 채팅앱, 가출 앱 등 이용한 아동 및 청소년 성매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과 성매매 방지피해자 지원 관련 민·관 협업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열린 토론에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론타워의 필요성과 공기관의 엄격한 법 집행,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성교육의 중요성 등이 쟁점화 됐다.

전북도 박철웅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함께 할 때 성매매라는 어두운 현실이 바로 잡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4차 산업혁명 선도

정책토론회 100여명 참석 전북혁신과제 발굴 논의

전북도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전라북도 ICT발전협의회는 7일 전주 라마다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과 전북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김성주 전 국회의원(현 국민연금 이사장), 송관호 전라북도 ICT발전협의회 의장,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김성조 전북지역 연합회장, 그 밖에 전북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대, 전주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책토론회는 한동승 전북ICT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전주대 교수)이 '4차산업혁명을 위한 전북의 ICT기반 구축방안'을 주제로 농생명·식품산업,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드론과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문화관광, 빅데이터 생태계조성 등 ICT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조했다.

서문상산 전주문화산업진흥원장이 'S/W중심의 도시 재생사업', 이진후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의 '전라북도 문화콘텐츠 발전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전북도 ICT발전협의회 총회에서는 송관호 전라북도 ICT발전협의회 의장의 인사말과, 전라북도 ICT융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나인호 군산대학교 교수와, 라진진 헤드아티티 대표이 사에게 도시사 표창을 수여하고, 올해에 추진한 사업에 대한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새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대한민국 재도약의 핵심 어젠다로 채택하였고, 세계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 도 역시 어려운 역경을 딛고 미래 성장동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말한 후 “전북도가 ICT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한국감정원 전북 군산지사 '기지개'

6년여만에 개소식... 도내 서부지역 서비스 제공 돌입

한국감정원 전북 군산지사가 개소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북 서부지역(군산, 익산, 김제, 고창, 부안) 도민들이 편리하게 부동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7일 한국은행의 화폐수급업무 재개에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부동산 시장관리 전문공기업인 한국감정원 전북 군산지사가 6년여만에 군산에서 개소식을 갖고 부동산 가격조사 및 부동산시장 전반 적정성 조사, 시장관리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감정원 전북 전주지사 1개소가 전북 14개 시군을 담당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도민들이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받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이다.

이번에 전북 군산지사가 추가 신설돼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전북 서부지역(군산·익산·김제시, 고창·부안군)에 공정한 부동산 가격공시를 비롯해 정확한 시장관리와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게 됐다.

전북도가 전북 뭇 찾기 일환으로 펼쳐지고 있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의 전북 유치 노력이 성과물로 나타난 사례 중 하나이다.

개소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국토교통부 토지구장, 군산시 유관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송하진 지사는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조사 통계업무는 조세와 각종 복지연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등 도민 생활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전북 군산지사가 앞으로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설립 이래, 40년간 은행의 담보평가와 보상평가 등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를 주로 수행해 오다, 2010년 정부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부동산가격 공시와 통계조사 등 공적 업무로 그 중심을 옮겨 오던 중, 2016년 9월1일부터 한국감정원법이 시행되면서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업무에서 철수하고, 타당성 조사와 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 심판기능을 전담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변성렬 원장 직무대행은 “공정한 부동산 과표산정과 전북도 세정관련 부서의 업무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정확한 재산관리에 따른 신뢰도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남원시 제2017-1466호 공고

낙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남원시 추천면 배덕리 일원, 낙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낙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 나. 위 치: 전북 남원시 추천면 배덕리 일원
 - 다. 면 적: A = 41,427㎡
 - 라. 사업기간: 2017년 ~ 2019년(공사완료시까지)
2. 공람장소 및 기간
 - 가. 공람장소: 남원시청 농정과, 추천면 사무소
 - 나. 공람기간: 2017년 11월 2일 ~ 11월 21일(20일 간)
 - 다. 공람방법: 공람장소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
3. 주민설명회 개최
 - 가. 장 소: 추천면 배덕리 배촌 마을회관
 - 나. 일 시: 2017년 11월 14일(화) 14:00
4. 주민의견서 제출
 - 가. 제출기간: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나. 제출장소: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공람장소에 제출
 - 다. 제출내용: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영향과 관련된 의견
5.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zmwon.go.kr>)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공고내용을 게재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농정과(063-620-63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8일 남원 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